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밭 가꾸고 살면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⑧

6. 진심이 범부 속에 있을 때(眞心在迷)

或曰眞心體用 人人具有 曠劫眞心未曾 斷人因何 何爲聖凡不同耶 何爲聖凡不同耶 何爲聖凡不同耶

같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이, 선남자여 일각의 깨끗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 (사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응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깨끗한 일각에 실제로 그처럼 몸과 마음에 자성(自性)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치이다. 하였다.

眞論云 乾坤之內 宇宙之間 中有一寶 秘在形山 此乃眞心在纏也 眞心在纏也 眞心在纏也 眞心在纏也

물었다. “진심의 본체와 작용이 사람마다 다 갖추어져 있는데 어째서 성인과 범부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까.” 대답했다. “진심은 성인과 범인이 원래 같지마

범부는 망령된 생각에 덮였기 때문에 번뇌에 가려 청정한 본성 깨닫지 못해

는, 범부는 망령된 마음으로 사물을 인식함으로써 깨끗한 자기의 성품을 잃어서 먼 거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때문에 진심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단지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나 지하에서 흐르는 물처럼 있게 되어 알지 못할 뿐이다.

故知眞心 雖在塵勞 不爲塵勞所染 故知眞心 雖在塵勞 不爲塵勞所染 故知眞心 雖在塵勞 不爲塵勞所染

故經云 善男子 譬如清淨摩尼寶珠 映於五色 隨方各現 諸愚痴者 見彼摩尼 實有五色 善男子 圓淨淨 見彼摩尼 實有五色 善男子 圓淨淨 見彼摩尼 實有五色 善男子 圓淨淨

또 <조론>에 ‘이 천지와 우주 가운데 하나의 보배가 있는데 형산(形山: 육신의 비유)에 숨어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범부 안에 있는 진심이요, 또 자은 스님은 ‘범심은 본래부터 있어서 모든 부처가 공용으로 가져왔지만 범부는 망령된 생각에 덮였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번뇌에 싸여 있으므로 여래장(번뇌에 덮여 있는 청정한 본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였다.

또 배공(당나라 대 대학자인 裴休)은 ‘종일토록 깨달음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범부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라. 진심이 비록 번뇌 속에 있으나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마치 백옥이 진흙 속에 던져졌으나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김원각(시인)

그러므로 경에도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청정한 마니보주에 오색이 비쳐서 각 방향에 따라 나타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구슬에 실제로 다섯 빛

동선스님 <장성 용수사 주석>

법조계 비리와 관련해서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오랫동안 굶아 있던 상처가 드러난 결과니 이제는 치료를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찰의 토지와 관련해 여러차례 법정소송을 했고 그때마다 관검사, 변호사를 만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6·25 직후 내가 은해사 주지로 가게 되었는데 은해사 산과 땅이 다 남에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김해운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교육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토지 15만평 하고 산 950평을 재단으로 회사해서 해성재단이라고 꾸며서 학교인가를 받았어요. 학교법인 이사장을 주지로 하고 김해운은 학교 교장이 되어 운영하며 절재산을 마음대로 하니 결국 시비를 가리는 싸움이 되고 15만평 되는 토지를 팔자는 결론이 났어요.

학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해사 땅이니 은해사만 난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은해사 재산 싸움이 한창일 때 내가 은해사 주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과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계약금을 다 받았으니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은해사 산림을 차입당하고 경매까지 가서 산이 열일곱사람에게 분할이 되었습니. 거기에 이의를 걸어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법원 황부장 관사라는 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님들 수행하는 절이 11개나 있는데 다 헐릴 위기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이를 붙들고 물었죠. 황부장 관사가 보다 보다 딱하니까 7일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7일뒤에 가서 찾아낸 묘안이 주지가 사찰 땅을 마음대로 재단에 준 것이 불법이고 총무원장이 허가를 한 것이 불법이고 문교부에서 허가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천년고찰이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어떻게 주지 마음대로 타인에게 증여할 수가 있는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찰 땅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하게 되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산을 샀던 열명이 넘는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그들이 애초에 산을 살때는 다 현금을 주고 샀는데 재판에서 졌으니 한푼도 못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겨 천년고찰인 수행도량을 지키게는 되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계속 한술가 없더군요. 법으로 은해사 토지는 한평도 안뵈었고 복구가 다 되었으니 다른 절의 스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주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선본사나 제주도 원명사등 법적 소송을 담당할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도량을 지키는 일이라면 몸 아까지 않고 찾아 다녔지요. 그때 어떤 스님이 “은해사 재판은 어차피 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쫓아 다니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당신이 스님입니까? 나는 죽을 때 까지 싸울겁니다. 만일 소송에서 지면 절 11개가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은해사 재판을 위해서 영천군 군민중 4만5천 세대의 세대주 서명을 다 받아 냈어요. 말이 4만5천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할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가지 바른 마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법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승소할수 있었던

- 1915년 전라북도 순창 생 32년 백양사 연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37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교과 졸업 40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정진 영천 은해사 주지 2차례 역임 대전사 주지사 도갑사 보림사 주지 역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역임 현재 정성 용수사에 주석



‘내 마음을 남의 마음에 맞추면 세상이 편하다’ 한암스님 말씀 평생 간직하며 살고있어요

것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면 반드시 추진했고 바른 마음과 옳은 일을 위해 온 정성을 다했기에 성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판사나 변호사들은 아주 정직하고 맑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와 일하던 변호사는 착수금 한 번 받아 간적 없고 대법관에게 병풍을 만들어 보냈는데 당장 돌려 보내더군요. 그만큼 법조계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많이 하지만 내가 처음 백양사로 출가할 당시는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웠지요. 열일곱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까지 국

문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가난하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월달에 백양사에 계시는 연봉스님께 세배를 갔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나니 스님께서 “너 중노릇 안할테냐?” 하시길래 “공부 시켜주면 하지요”했습니다. 그랬더니 “절에 있으면 저절로 공부할 것 아니냐” 하더군요.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직 바르게 살라” 하시던 연봉스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 시주물이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스님들이 공부하고 정진하

고자 하는 마음들은 대단했습니다. 어디에 선지식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찾아가서 배우고 정진했습니다. 나도 백양사에서 대교과를 공부 하던중에 원주소임이라든가 하는 사중일이 많아서 계속 있다가는 공부를 더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대원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한영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국의 학인들이 공부를 하러 올 때 자기들 먹을 식량을 가지고 와야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학비도 식량도 없었지만 막무가내로 배우고 싶다고 때를 쓰니 딱했는지 금강산 유점사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공익 박사에게 소개편지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타고 단발령 고개를 넘어 장안사까지 갔습니다. 마침 8월 보름이라 신정불공을 드리고 대중공양을 하는데 백양사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가난해서 학인들이 굶기도 하는 백양사와는 달리 금강산은 아주 큰 부자집이었습니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016 Free & Free 대축제”

「으뜸 통화품질 챌린지」 및 언론을 통해 통화품질을 입증받은 정보전화 016 - 추천한 고객과 추천받은 고객에게 총 1,000 분의 무료통화를 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요금납부 등의 조건으로 신규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별한 016의 Free & Free 행운 - 놓치지 마세요!

free 1 언론이 인정한 016의 통화품질- 최대 1,000분 무료통화 대축제

- 행사기간 : 1999년 1월 22일 ~ 2월 20일(추천은 2월 19일까지만 가능)
행사대상 : 추천고객-1999년 1월 21일 현재, 정보전화 016고객 (사용정지중인 고객 제외)
추천대상고객-추천고객으로부터 가입추천을 받아 행사기간중 신규가입한 고객 (중고단말기, 프리폰/렌탈폰 가입고객 제외)
행사내용 : 추천받은 신규고객이 행사기간내에 정보전화 016에 신규가입한 경우 무료통화 160분 추천고객에게는 신규고객 1명당 무료통화 100분씩 (최대200분)을 드립니다.(5명까지 추천가능)
추천받은 고객은 추천일 다음날로부터 행사종료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무료통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당일 가입시 무료통화 혜택 없음)
신규가입하시기 전에 본인이 추천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신규가입 직후 무료통화혜택이 부여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추천/추천여부확인 : 02)3402-05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 대리점
추천기간 : 09:00- 22:00 공휴일도 가능)
이미 정보전화 016에 가입한 고객끼리의 추천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ree 2 최신 PCS폰을 패키지로 제공

- 행사기간 내 아래의 3가지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최신 PCS를 패키지로 드립니다.
행사기간 : 1999년 2월 1일-2월28일
가입조건 :
·요금납부방법 : 신용카드 또는 KT합신카드
·요금서비스 : 프리2000이상 (프리300, 프리400포함)
·정보서비스 : 1개이상 가입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최신PCS 제공행사의문의 : 080-016-00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대리점)
제공용 PCS폰



free 3 졸업 입학생에게 160분 무료통화- '99 새내기 대축제

- 행사기간 : 1999년 1월 22일-2월20일
행사내용 :
·졸업장, 학생증, 대학입학 접수증, 수능시험수험표중 하나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행사 내용중 1,000분 무료통화 대축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료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단, 무료통화는 1,000분 무료통화 혜택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서울 : 02)732-1522, 737-8881로 전화주시면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택배로 기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 732-1522, 737-8881
팩스 : 02) 737-0697
우편번호 110-170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앞